



[뉴스] 두산그룹 떠나는 박용만 회장 삼부자도 각각 독립 02

코스피	2930.17 (-32.29)	코스닥	987.75 (-20.93)
금리 (우대금)	1.877 (+0.012)	환율 (원/달러)	1180.90 (+3.70) (10일)

연봉인상·재택근무 'MZ세대 인재' 겨냥 워라벨 경영 가속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대 간 인식·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혁신을 통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기업들의 업무 환경도 원점으로 복귀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사무실에 개인 책상을 두는 대신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MZ세대 워라벨 불만에 이직 잦아 국내 주요기업 문화혁신 움직임

직무별 채용 세분화, 기본급 인상 거점 오피스텔로 근무환경 개선 재택근무제도 공식 제도로 도입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중시

공정과 보상을 중시하는 MZ세대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을 수 있지만 노동 강도가 높은 직장을 찾기보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 MZ세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입사 1년이 안 돼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20~30대 남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첫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75.5%는 이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이직 시기는 '1년 미만'을 선택한 이들이 37.5%로 가장 많았다. MZ세대들이 첫 이직을 감행한 이유는 '워라벨'(38.6%, 복수응답) 불만족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은 젊은 인재 확보를 위



현대모비스가 재택근무를 공식 인사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MZ세대에 맞는 기업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SK그룹은 MZ세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실무형 인재 채용을 강화했다. 신입 채용 프로세스를 자사 직무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고, 대졸 신입 모집 시점은 상·하반기 1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수시채용 방식의 '주니어 탤런트'(직무경력 3년차 미만 지원자 선발) 채용과 통합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구성원 기본급을 평균 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이 3~4%였던 최근 2년과 비교해 두 배를 넘는다. 최근 대기업 연봉·성과급 논란 등을 의식해 사측이 전향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MZ세대에 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MZ세대 직원과의 활발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시작된 재택근무제는 공식 제도로 도입했다.

◆기업 거점 오피스 활용 확대 움직임

포스코그룹은 워드 코로나가 시작 직전부터 그룹사 직원들이 공유하는 거점 오피스 '워드 포스코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70석, 을지로 금세기빌딩 50석 규모다. 1인용 몰입좌석, 다인용 라운지, 회의실 등 다양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서울지역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피로도를 줄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원격근무 분위기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은 거점 오피스제를 도입한 지 1년이 넘었다. 한화시스템 ICT 부문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일대 5곳에서 거점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 근무를 더한 원격근무를 주 3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 8곳에 400여석 규모의 거점 오피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그룹 계열사 역시 거점 오피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인센티브'

“은행, 목표 달성 땐 주신보 출연료 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0.01%~0.06% ↓ 금융사 대출조건 변경 우려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목표치를 달성한 만큼 출연료율의 0.01~0.06%를 감면해주는 구조다. 의무는 아니지만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이 일시상환 대출의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출연료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인센티브제도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무적으로 분할상환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료율을 낮추는 것이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고객이 3%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며 “일시 상환방식을 아예 제외시키거나 분할상환에만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조건이 변경될 경우 차주들의 대출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금 2억5000만원 가운데 2억을 대출받았다면 통상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58만3000원이다. 반면 원금의 5%(1000만원)를 분할 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을 포함한 약 99만90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하루 최대 요소수 생산량이 150톤인 이 업체는 요소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 하루 평균 5톤~10톤의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뉴스1

“3개월 분량 車 요소수, 오늘부터 공급”

정부, 수입·국내 보유물량 확보 / 당 1200원씩 30 l 한도 공급

정부가 국내에 약 3개월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예비비 20만 l 포함, 이미 확보한 요소수로 컨테이너 화물차 약 7000대부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요소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 당 공급 한도를 30 l (리터)로 정하고, 11일부터 시장 기준 가격인 l 당 약 12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요소수 공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민간업체의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비축분 등을 합치면 현재 2달 반개월 가량의 차량용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차관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석탄가

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우선, 정부는 중국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1만8700t(차량용 1만3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됐다고 외교부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2만7000 l는 11일 군수송기를 통해 반입한다. 이 물량은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곳에 먼저 공급한다.

<4면에 계속>

/원승일·최영훈 기자 wo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 대통령, 21일 '국민과 대화'... 임기말 국정구상 전달
▲ 홍남기 “부동산 상승세 많이 꺾여... 진정 양성” /사진 뉴스1

▲ 공익신고 창구에서 '신고자 노출'... 권익위, 운영 가이드 마련
▲ 여야 “요소수, 정부 நட장대응” 질타...청와대 “송구”



▲ 광주 찾는 윤석열 '전두환 옹호' 호남민심 달래기 /사진 뉴스1
▲ '라임 로비' 횡령 등 혐의 이강세... 2심도 유죄, 징역 5년